

D등급 농업기반시설, 전남 가장 많아

농어촌공사, 1년-6년 동안 개·보수 계획 서삼석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 시급”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전남에 가장 많은 18개소가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2011년-20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소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게 된다.

농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만4천 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9천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천개에

불과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더욱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제 역할 못하는 '소상공인 교육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소상공인들의 각종 교육을 위해 전국 5곳(광주, 대전,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2018년 43.5%에서 2019년 78.3%로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2020년 56.7%로 떨어졌고, 올해는 9월 기준 38.6%로 급격히 추락했다.

특히 광주 서구에 소재한 광주호남권 전용교육장의 이용률은 올해 1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부산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 전용교육장도 19.5%로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예산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 9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단 2억4천700만원으로 집행률은 29.8%에 그쳤다. /김진수기자



입장표명 없이 자리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이낙연 필연캠프 해단식을 마친 뒤 입장표명 없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운영관리 소홀 주철현 “항만 서비스 개선 대책 수립해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소홀한 항만 운영관리가 국내 주요 항만의 중심에 이르는 심각한 체선율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 물동량을 관리하는 YGPA 여수사무소 총 인원은 11명이다. 이 중 항만관리 업무 담당자는 2명

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광양항 물동량을 관리하는 여수항만공사 직원은 170명으로, 공사와 함께 부두 운항 관리를 맡는 통합 하역운영사와 선사 터미널 인원까지 더하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국유 부두의 전체 하역능력은 2019년 기준 3천100만 t, 물동량은 3천700만 t으로 19.4%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다. 이는 부산 등 국내 주요항만 대비 2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수산단 기업체와 항만 업계에서는 부두의 하역능력 부족도 체선의 원인이지만, 항만공사의 운항 관리 및 선석배정 등 미흡한 항만 운영관리도 체선율 고공행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에 대한 화물선의 '선석배정, 하역관리 등 항만운영 관리 서비스'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무이자 공적 영역이다"며 "공사의 운항 관리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물동량의 감소,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관련 항만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항만공사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항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학동 참사 부실수사 강도 높게 추궁”

국감 인물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안전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후진적 인재로 평명난 광주 동구 학동참사의 가려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흥식 씨의 해외 도피 제보를 사전에 받고 목살한 정황 등 경찰의 부실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원정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조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직·간접적인 참사의 원인에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공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



서는 “행안부는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질타한 뒤 후속 대책을 시급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소방청이 화재 재난 대응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석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등 경제적 위상이 공고해졌지만 후진적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후진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승남 “고흥만 간척지 염해피해 보상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고흥만 간척지 염해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보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1998년에 준공된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농도는 올해 초부터 0.38% - 0.5%를 기록하며 농사를 위한 한계 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염해농도가 높아지면 벼 모의 이파리 끝이 노랗게 마르고 뿌리는 까맣게 썩게 된다.

현재 피해 원인과 피해면적, 피해보상안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고흥만 염해피해대책위원회간의 견해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6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낮은 점, 타작물 재배율이 올해 36.2%로 작년 81.1%에 비해 낮은 점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염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대책위원회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의 바닷물 누수가 주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염해피해의 원인, 면적 등을 조사하는 조사용역을 의뢰한 상태고 피해대책위원회도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사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남 의원은 “간척지에서 염해 농도는 농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수치다”며 “염해피해의 원인이 파악되면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을 위한 임대료 감면과 금전적 보상 등 적절한 보상안과 재발 방지대책·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도 분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